

노중국, 『백제의 대외교섭과 교류』 4편 응진도읍기, 2012.

문주왕 응진천도의 역사적 의미

- 중국 남조와의 교섭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남조의 문화가 적극 수용, 한성도읍기의 부여-고구려 문화와 연결되는 북방문화적 성향과 비교

지명, 국경

- 백제의 성(城)들, 성들의 함락과 지배 과정이 영토의 확장, 축소와 연결, 중세적인 인상

문주왕

- 476년 송에 사신을 보냈으나 고구려의 방해로 실패

동성왕

- 남제에 대한 內屬 요청(484), 남제가 고구려 장수왕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승상 다음 지위)으로 진호한 것을 인정한 후의 대응
(고구려 장수왕은 425년 이후 북위에 매년 사신 파견, 남조 송에 사신을 보낸 것은 455년이 처음, 북위는 고구려가 남제에 사신을 보낸 것을 질책 but 지속 파견)
- 제라 공수동맹 강화

* <남제서> 백제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백제가 북위의 공격을 격퇴하였다는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490년, 484년 두 번의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장소는 불확실
- 북위가 침입한 백제 영역이 중국대륙에 설치된 백제계 군이었을 것이라는 해석
-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이거나 북위와 고구려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보는 견해, <위서>에는 관련 기사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근거

무령왕

- 512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鎮東大將軍 작호를 받고 9년만 521년에 다시 파견하여 寧東大將軍 작호를 받음
- 양나라에 보낸 사신을 통해 更爲疆國, 傍小國이라는 표현을 사용
- <주서>, <북사> 백제전의 기사를 통해 무령왕이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한참만에 북위와의 교섭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 다변화 외교 개시

성왕

- 고구려와 일시적으로 군사적 균형이 이루다가 잇단 패전으로 사비 천도
- 백제를 중심으로 양나라와 신라를 연결하는 외교관계망 구축

* 왜와의 교섭

- 461년 개로왕이 동생 昆支를 왜로 파견, 477년 귀국
- 493년 왜가 고구려에 日應吉師를 파견, 이로 인해 동성왕 시기에 백제와 왜의 갈등 발생
- 무령왕은 504년 麻那君, 505년 斯我君을 왜에 파견하여 관계 회복